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7/27~7/31)

금리 안정엔 반도체, 중동 불안엔 방산 매수 구간

- 빅테크·반도체 실적이 이번 코스피 7천선 반등의 질을 가르는 한 주
- FOMC·미국 GDP·중동 리스크가 이번 주 시장 방향을 좌우
- 추격매수보다 실적·현금흐름 확인 뒤 단계적인 분할매수가 유효
- 반도체·원전·방산·금융 중심으로 이번 주 유망 업종과 종목을 압축

빅테크·반도체 실적,
FOMC, 미국 GDP
근원 PCE, 중동 긴장을
소화하는 **고변동성 구간 전망**

빅테크·반도체 실적이 이번 코스피 7천선 반등의 질을 가르는 한 주

금주 국내 증시는 빅테크·반도체 실적, FOMC, 미국 GDP·근원 PCE, 중동 긴장을 소화하는 고변동성 구간으로 전망한다.

KOSPI 예상 밴드는 6,450~7,370pt로 제시한다. 하단은 유가·금리 동반 상승과 외국인·기관 매도, 레버리지 청산이 반영되는 영역이며, 상단은 AI 설비투자 지속과 반도체 가이던스 개선, 금리·환율 안정이 확인될 경우 가능한 반등 구간이다. 더불어 최근 급락은 이익 훼손보다 업황 고점 논란과 수급 충격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한다.

FOMC·미국 GDP·중동 리스크가 이번 주 시장 방향을 좌우

금주 핵심 이벤트는 7월 29일 SK 하이닉스 실적과 FOMC, 30일 삼성전자 실적·미국 2분기 GDP·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31일 아마존 실적이다.

빅테크는 AI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률과 잉여현금흐름 유지 여부가 중요하다. FOMC는 금리 동결보다 향후 인상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 핵심이며, 근원 PCE와 고용은 물가와 경기 체력을 함께 보여줄 변수이다. 호르무즈·홍해 운송 차질이 확대되면 유가·운임·환율이 동시에 올라 외국인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추격매수보다 실적·현금흐름 확인 뒤 단계적인 분할매수가 유효

투자전략은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을 나누는 방식이 적절하다. 주 초에는 현금과 금융·통신 비중을 유지하고, SK 하이닉스와 빅테크 실적에서 HBM 수요와 CAPEX, FCF가 확인되면 반도체·IT 부품을 1차 확대한다.

이후 FOMC가 추가 긴축 신호를 강화하지 않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면 원전·전력기기·방산으로 넓히는 전략이 유효하다. 반대로 유가·금리·환율이 동반 상승하거나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약하면 추격매수를 자제 및 중단해야 한다.

반도체·원전·방산·금융 중심으로 이번 주 유망 업종과 종목을 압축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AI 하드웨어, 전력기기·원전, 방산, 금융·보험, 통신·AI 인프라, ESS·배터리이다. 주요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에너지솔루션, KB 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지빌리티, 한전기술, 미래에셋생명, SK 텔레콤이다. 삼성전자·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수요와 가이던스, 두산에너지빌리티·한전기술은 원전·SMR 수주, 금융·통신주는 현금흐름과 주주환원이 핵심이다. 이번 주는 실적과 FCF가 개선되는 종목으로 놀림목에서 선별해야 한다.

[한장으로 읽는 금주 투자 전략 요약]



[한장으로 읽는 금주 글로벌 경제지표 요약 및 전망]

① 주간 종합 요약

“ 금리 동결 전망, 물가 둔화에도 신중 기조 유지
성장·고용은 견조하나, 중동 리스크가 변수 ”



경기·고용
완만한 냉각

- GDP 2분기 2.3% 전망
- 실업수당청구 206K 전망
- 소비심리 소폭 개선



제조업·중국
확장 약화

- 美 제조업 PMI 54.5 전망
- 中 제조업 PMI 49.9 전망
-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물가
둔화 속 상방
리스크

- 근원 PCE MoM 0.1% 전망
- 근원 PCE YoY 3.4% 유지
- 유가·운송비 상승 우려



연준·금리
동결·신중

- 기준금리 3.75% 동결 전망
- 케빈 워시 연준의장 회견
- 인하 시점 신중히 언급



지정학 리스크
지속

- 미·이란 긴장 고조
- 호르무즈 통항 차질
- 유가·금리 변동성 확대



주요 리스크 : 미·이란 긴장·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 유가 상승 시 인플레이션 재자극, 연준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 선박 통항 차질, 해상 운송비 상승,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②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전망

일자	시간	외화	이벤트	예측	이전	한글 핵심 코멘트
7/27 (월)	-	-	주요 경제지표 발표 없음	-	-	관망 장세, 중동·유가 뉴스 주목
7/28 (화)	23:00	US	CB 소비자신뢰지수 (7월)	92.1	91.2	소비심리 소폭 개선 전망
7/29 (수)	23:30	US	원유재고	-	2,010M	재고 증가 시 유가 단기 하락 요인
7/30 (목)	03:00	US	금리결정	3.75%	3.75%	금리 동결 전망
	03:00	US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	-	정책 기조·전망, 시장 방향 결정
	03:30	US	FOMC 기자 회견 (케빈 워시 연준의장)	-	-	케빈 워시 의장 발언 주목
	21:30	US	근원 PCE (MoM) (6월)	0.1%	0.3%	기조 물가 둔화 전망
	21:30	US	근원 PCE (YoY) (6월)	-	3.4%	3%대 중반 유지 전망
	21:30	US	GDP (QoQ) (2분기)	2.3%	2.1%	성장률 개선 전망
7/31 (금)	21:30	US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06K	187K	고용 완만 냉각, 안정 유지
	08:00	KR	한국 소매판매 (MoM) (6월)	-	0.1%	한국 내수 흐름 확인
	10:30	CN	중국 제조업 PMI (7월)	49.9	50.3	수축 전환 우려, 경기 둔화 시사

③ 핵심 해석 및 시사점



① 성장·고용

- GDP 개선으로 경기 하단 지지
- 고용 완만 냉각, 큰 약화 제한
- 소비심리 소폭 개선

완만한 성장, 연착륙 가능성



② 물가·정책

- 근원 PCE MoM 둔화 전망
- YoY는 3%대 중반 유지 예상
- 케빈 워시 의장, 신중 기조

물가 둔화에도 금리 동결 전망



③ 리스크·변수

- 미·이란 긴장, 유가 상승 위험
- 호르무즈 통항 차질 가능성
- 유가·금리 변동성 확대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 좌우



투자자
체크 포인트

✓ 케빈 워시 의장
발언 내용 주목

✓ 근원 PCE 둔화
지속 여부 확인

✓ 성장·고용 지표
조합 해석

✓ 유가·중동 리스크
모니터링

✓ 금리·달러
변동성 대응

[한장으로 읽는 금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요약]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I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